

사회적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등이다

최재천 교수(49)는 방송 강연내용 때문에 꽤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하루에도 몇 십 통씩 협박전화가 걸려왔고 이메일 테러 역시 막강했고 끈질겼다. 남자 망신 그만 시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사회생물학자로 잘 알려진 최재천 교수가 모 방송에 출연(여성의 세기가 밝았다)는 강연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키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최 교수는 성 선택론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생물학적인 것에 반해 사회적 요인에 의해 뒤러려 있음을 지적했다. 생물학적 필연성에 의해 여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논지는 당연히 남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전 단지 생물학자로서의 입장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오는 반응이 상당히 더러구요. 그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비난하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였죠. 하지만 그보다 세 배 정도의 격려를 여성들에게 받았습시다.”

지난 겨울 이 내용을 책으로 묶기 위해 재작업을 할 때만 해도 걱정이 앞섰다. 그런 강연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책을 내고 나면 ‘테러’에 시달릴 게 염려됐던 것. 그러나 아니었다.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가는 면이 있더군요. 예상했던 만큼 반발이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큰 수확은 여성학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었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아내와 사는 덕에 나름대로 깨어 있다고 여겼던 최 교수지만 남성적 시각의 한계를 엄연히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계 입장에서 생물학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여성학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어요. 이전만 해도 여성학의 바깥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소리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성학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성숙해야겠구나 싶더군요. 이번에 책을 낼 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여성학 이론들을 공부했고 책을 많이 구해서 읽어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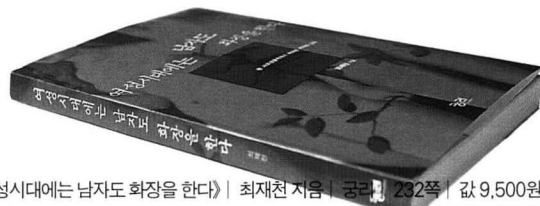
최 교수가 이번 책을 통해 밝히고 있는 학문적 근거는 사회생물학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은 말 그대로 동물의 사회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이 처음 나왔을 때 전면에 부각된 것이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였다. 때문에 사회생물학은 기존의 모든 학문을 인정하는 학문, 보수적이고 남성우월적 사고를 옹호하는 학문이라는 딱지를 얻게 되었고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가장 많은 반발을 샀었다.

하지만 사회생물학은 유전자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진 학문이다. 이를테면 남자들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는 속설의 허상을 보면 단적인 설명이 된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기에 수컷들은 여러 암컷들과 짝지으려고 기를 쓰고 암컷들은 비교적 덜 그렇죠. 왜냐하면 수컷은 정자를 값싸게 많이 만들어서 많은 곳에 뿌리려고 하고 암컷은 난자라는 수는 적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존재를 번식 전략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표피적인 것만 보고 남성은 바람기가 있는 거고 여성은 바람기가 없다고 규정해서 남성의 바람기를 옹호하거나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은 아니거든요. 또 남성이 바람을 핀다면 바람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남성만큼 바람피는 여성의 숫자도 존재하는 거죠. 남성만 부각이 되었을 뿐이죠.”

그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여성들이 왜 바람을 피야 되는지 9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었다. 암컷의 입장에서 한 수컷에 매달려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 최재천 지음 | 궁리 | 232쪽 | 값 9,500원

있다가 그 수컷이 불임이면 자식을 못 낳는 게 된다.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자꾸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 종이 살아남기 위해선 유전자의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자식을 여럿 낳은 부모는 잘 되면 다 잘 되지만 못 되면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바람기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게 생물학자로서의 그의 주장이다.

책에 소개된 이야기 중 <해픈 남성, 신중한 여성?>에서 그가 밝히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새들의 경우 일부일처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겨졌죠. 그런데 DNA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자식을 기르고 있는 수컷이 진짜 아빠일 경우가 평균 30% 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의 경우도 적용되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밖에도 남성우월성을 반증하던 해묵은 논쟁인 남성의 뇌가 여성에 비해 크다는 속설은 사회적 성교육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라는 분석, 여성의 대명사인 ‘질투’가 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해석 역시 신선하다. “여자는 자기 몸으로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혈액형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야 해요. 남자들은 끝까지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아니야’ 하는 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성시대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

는 대세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얻는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고달파지는 거죠. 이를테면 ‘곱게 커서 시집 잘 가서 남편 덕에 편하게 살자’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자들이 이득을 누린 게 있다면 또 그만큼 큰 책임감 때문에 고달프게 산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여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때가 온거다라고 말이죠. 여성들에게 오히려 힘든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이는 반대로 남성들에게 해방의 의미일지 모른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여성에게 덜어주라는 것이다. 남성들 스스로 여성의 시대가 오는 것이 남성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 “혼자 생계의 짐을 지고 살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논의를 해서 해결점을 모색하자는 것이죠. 기

껏 지금 쥐고 있는 가부장의 권리라는 것도 보잘 것 없잖아요. 그걸 놓지 못해서 일생을 커다란 짐 속에 살아야 할 이 유가 없는 거죠. 여성의 시대가 오면 남성이 더 편해질 겁니다. 물론 인식이 뿌리깊은 만큼 변화가 쉽진 않겠죠.”

때문에 남성들 스스로 이 책을 찾아서 읽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 무리다. 그래서 최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한다. “여성이 두 권을 사서 한 권은 자신이 읽고 한 권은 가까운 남성을 주는 겁니다. 어느 한 성만 읽고 깨우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니까요.”

진정한 페미니즘은 양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기인한다. 이른바 젠더로 대변되는 사회적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간’으로 여성과 남성이 만날 때 양성 모두 진정한 행복에 이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